**그림으로 만나는 세상 중간고사 수업필기**

**[ 2주차 ]**

\* 언어의 정원

번역은 같은 사랑, 일본 포스터의 위의 사랑은 코이, 아래의 사랑은 아이 / 우리말로 번역하면 다 같은 사랑

그 이전의 사랑을 옛날 언어로 표현했음

하나의 포스터에 같은 사랑을 이야기할 때 다른 한자가 쓰이고, 그걸 다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다른 한자지만 같은 단어로밖에 안되는 경우가 있다.

츠야츠야 공화국에 글자(한글)를 수출함. 츠야츠야 공화국에는 말은 있었지만 문자가 없었음.

텍스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텍스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문명 文明

언어에서 ‘언’과 ‘어’는 다르다. 글자에서 문자와 말은 다르다. 합해서 언어인 것이다.

말을 잘한다고 해서 글을 잘 쓰는 것은 아님. 읽을 수 있다고 다 말을 하는 건 아니다.

문명은 인류가 있었을 때부터, 인류는 사람이 있었을 때부터.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은 직립보행을 하고, 도구를 쓴다는 점.

기우제를 지내는 이유? 바람, 비가 왔으면 하는 바람. 기우제는 어떻게 지냈나? 도구가 필요

당시 사람들은 번개가 치는 것을 하늘에서 뱀이 내려온다고 생각했음.

예술의 시작, 미술의 시작은 내가 보이는 것.

번개를 왜 뱀으로 생각했을까? 내가 뱀을 알기 때문임. 내 환경에서 내가 뱀을 알았고, 저 번개가 뱀처럼 보였음. 그래서 저 뱀이 내려올 때 비가 내린다. 그러면 우리가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 기우제를 지내는데 어떠한 형상으로 만들까?

미술이 처음 시작될 때는 보이는 것과 아는 것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 내가 무엇을 아느냐 .. 내가 모르는 것을 그릴 수는 없음.

**언어가 미술에는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우리나라 한글이 어떻게 츠야츠야 공화국에서 쓰이고 있는지.**

**보이는 것과 아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 3주차 ]**

(복습) 언어와 문자는 다르다. 츠야츠야 공화국은 한글을 쓰지만 그들의 언어가 있음.

\* 미술(예술)의 시작

문명과 인류와 함께 미술은 시작됐음.

**스톤헨지**: 가장 오래된 **건축물** 중 하나. 스톤헨지를 통해 사람들은 무언가를 염원하고 있었고, 알려고 했었고, 기념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었을 것이다.

금, 악세서리, 반지, 귀금속이 갖는 의미와 스톤헨지 유적지의 석조물이 갖는 의미는 어느 정도 동일하다.

예술의 시작: **비너스**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최초의 비너스. 최초의 인간을 모델로 한 인간의 조각.

이걸 왜 만들었을까? 다산, 많은 자식을 갖고 건강하고 나의 종족을 많이 🡪 유방도 크고 배도 풍만하고 엉덩이도 풍만함.

이때는 나의 생, 나의 가족, 나의 부족의 강건함, 살아남기 위해서 다산이 중요했음. 그렇기 위해선 건강한 엄마가 필요했음, 그 다산의 상징이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보는 미의 관점이나 안목에 따라서, 한단계 더 나아가서 원래는 그렇지 않았음. 미술이라는 것은 보기에 아름다운게 아니라 원래는 조금 더 원초적이고, 근본적이고, 순수한 목적의 사람이 사람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은 성스러운 일, 그 성스러운 일을 위해서 여신을 표현함.

예술의 시작: **Lascaux Cave**

인류 미술의 기원.

예술적 가치는 남겨서 보존하고 교육의 의미가 있음.

Lascaux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스케치북, 물감 색연필 같은 것들이 없던 시절에 기초적인 미술의 개념은 이때부터 시작되었음.

이 그림에서 우리가 봐야할 것은 소. 앞에 있는 것은 앞에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뒤에 그리는 원근법이 있었음. 입체적임

이 그림을 왜 그렸을까? 기념, 교육, 오늘 친구가 죽었다 .. 저 소를 잡다가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니 후세나 동료나 친구들에게 여기를 찌르면 안된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교육의 목적.

희망, 무언가를 원하는 게 있음. 그린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때는 그랬음.

내가 소를 잡으면 이 소가 세상에 없어짐, 벽에 그림, 그럼 얘가 내일 나타날 것임.

권력이나 계급을 나타내는 것 보다는 이런 것을 그림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여줄지를 분석 ..

동굴 자체의 형태를 살려서 그림, 입체감이 있음.

모노노케 히메 사슴신 / 이 세상에 없는 것을 그리고 싶을 때는 과거에 있었던 것을 참고할 수밖에 없음.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선 기존의 것들을 다 알아야 한다. / 모노노케 히메의 사슴신이 2만년 전의 사람들이 그린 사슴과 다르지 않다.

**[ 4주차 ]**

예술가: 무언가 만드는 사람.

4대 문명: 이집트, 인더스, 메소포타미아, 중국(황허) / 공통점: 강을 끼고 있음. 강을 따라 발전됨.

함무라비 법전: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시작됨 /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눈이 다쳤다면 그만큼만, 강자가 약자를 함부로 해치지 못하도록.

텍스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부조

< 나람신 왕의 승전비 >

계단식으로 상승 효과를 주고, 끝에서는 창 맞아서 쓰러짐. 승승장구하는 왕의 모습.

인물 표현에 있어서의 특징: 포즈가 다 똑같음. 왜 포즈는 다양하지 못했을까?

< 죽어가는 암사자 >

해부학 기술을 알고 있었음. 화살이 척추를 관통했음, 뒷다리가 풀려서 거동을 못하는 것을 작품으로 표현함.

내가 보이는 것, 내가 아는 것을 어떻게 하면 그림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물고기는 옆에서 본 그림, 연못은 위에서 본 그림, 나무는 옆에서 본 그림.

신체 표현에 있어 해결이 되지 않았던 것: 발가락, 어떤게 왼발인지 오른발인지 구별 X

아크나톤: 예술계의 이단아.

발가락이 보임. 포즈가 자연스러움.

**[ 5주차 ]**

보이는 것 / 발견 / 아는 것

그리스, 로마(神話) / 신들의 이야기

< 파르테논(아테네) > , 기둥을 중점으로 보기

중력이 계속 당기고 있음, 중력의 개념을 알고 있었음.

가장 하늘과 가까운 곳에 건물을 지어서 신들에게 공헌하는? 성전, 전당

<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광경 >

이집트 미술에서는 사람들이 어깨가 보이고 다리는 왼발만,, 그게 아직 남아있었음. 옆모습을 한 사람이 없었음. 다리는 다 한쪽방향, 상체는 다 정면. 누운 사람을 표현할때도 어깨를 표현함. 아직 이집트 미술의 잔재가 있음, 영향을 받고 있음. 아직 벗어나지 못함.

어떻게 이집트 미술에서 벗어났는가?

< 장기를 두는 아킬레스와 아이아스 >

창이 장기판 뒤에 있는 것을 확실히 보여줌. 이때부터 사람의 옆모습을 나타냄. 하지만 아직 이집트 미술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한 것은 눈. 눈은 아직도 정면임. 그 외의 나머지는 앞에 있는 것은 앞에, 뒤에 있는 것은 뒤에 표현. 대칭 속에서의 조화.

도자기 전체의 조형까지 생각함. 도자기의 손잡이에서 창의 위치가 이어짐. 도자기의 손잡이에서 이어지는 교차, 그림 자체가 입체화가 됨.

< 헥토르의 무장 >

발이 정면을 봄. 최초. 포즈가 자연스러워짐. 더 이상 눈이 정면을 보지 않음.

< 원반 던지는 사람 > 미론

원반 던지기 선수를 위한 교본이 아니라, 이 자체가 하나의 조각 작품. 목적을 갖지 않음.

지금까지는 영원성을 위한 하나의 작업물이었다면, 이것 또한 무언가의 기억을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하나의 작품임. 위대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작품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영감을 준다.

< 라오콘 >

트로이 목마. 해부학 지식이 있었음.

기둥!! **도리아 / 이오니아 / 코린트** - 형식으로 변화해왔음.

앞선 신전들은 도리아 형식이었음. 석조전은 이오니아식.

기둥이 가늘어지면 개방감이 있음, 건물이 세련되어보임.

< 아칸서스 >

중력 역발상. 보통은 집을 쌓아올린다고 생각함. 반대로 신전은 사실 인간이 지었지만 땅에서 올라온다고 생각, 식물들은 위에 있음. 신들의 힘으로, 신들이 끌어올려서 쌓았다고 생각, 땅에서 자라났다고 생각.

**[ 6주차 ]**

< 가르 수도교 >

아치에 의한 3층 구성. 아치의 발명.

이집트였다면 벽돌을 사용했을 것임. 로마는 아치를 계속 쌓음 🡪 공간이 넓어짐, 내구도가 좋아짐. 아치 구조인 이상 중력을 받을수록 더 단단해진다. 이게 로마 시대에서 보여주는 최대의 발명이자 석조술.

**키스톤(keystone):** 이맛돌.

불국사: 아치를 다리로 씀. 청운교 백운교

아치를 회전시키면 돔이 됨. 아치를 일렬로 배열하면 복도 같은 통로가 됨.

< 판테온 신전 >

돔 형태.

이집트, 그리스 여태까지는 신들. 이제는 사람. 그 사람이 세운 업적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표현할 것인가.

로마의 양식: 아치가 있고 그 아치를 어떻게 배열하는가. 기둥은 어떻게 서있는가.

16분